

광주 자금 수도권 이어 영남권 유출 급증

광주신세계 카드 소지 고객 지난해 소비 패턴 분석

타지역 결제 금액 1000억원 ... 부산·대구에서 234억원 소비

외지인 광주 결제액의 6배 ... 관광·유통 서비스산업 대책 시급

광주 시민이 다른 시·도에서 돈을 쓰는 '지역자금 역외유출' 규모가 수도권에 이어 영남지역에서도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호남 화합 분위기 속에서 광주와 영남을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수단이 증가하면서 광주지역 소비자들이 영남지역에서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수서고속철(SRT) 개통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자금역외유출도 더욱 증가하고 있어 광주지역의 관광과 유통 등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활성화 대책 마련이 절실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10일 광주시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카드를 소지한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신세계 카드를 지닌 소비자가 타지역에서 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1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금액 중 서울 신세계강남점에서 400억원, 부산 센텀시티에서 180억원, 대구신세계에서 54억원을 각각 소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1000억원의 지역자금이 역외유출된 것이다.

반면, 지난해 다른 지역 신세계 카드를 지닌 고객이 광주에서 결제한 금액은 역외유출된 금액의 6분의 1 규모인 162억 수준에 그쳤다. 이 가운데 100억원은 서울지역 고객이 광주에서 소비한 것이며, 부산지역 고객은 45억원, 대구지역 고객은 17억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신세계 카드를 기준으로 한 지역자금 역외유출이 지난 2008년 76억원에서 2009년 98억원, 2010년 124억원으로 매년 30%가량 늘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광주 운행시간이 2시간 10분대에서 1시간 40분대로 30분가량 줄면서 교통량도 개통 전 하루 평균 1만9507대보다 15.5%증가한 2만2529대를 기록하고 있다. 또 2016년 12월 SRT 개통으로 광주와 수서 간 이동시간이 최단 1시간 29분으로 단축되면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이용객이 무려 290만명을 넘어섰다.

결과적으로 각종 교통 수단의 개통으로 광주와 서울, 광주와 대구·부산 등지를 더욱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광주지역 서비스·유통산업이 역풍을 맞고 있는 셈이다.

지역 서비스·유통업 한 전문가는 "비교 기준이 되는 신세계백화점 발급 카드만 놓

고 봐도 불균형이 심각한데 현금 사용과 다른 신용카드 사용까지 감안한다면 역외유출 폭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면서 "백화점 고객의 상품 구입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이들 소비자들은 신세계백화점 카드 사용 금액의 25%가량을 추가로 현금이나 다른 백화점 카드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도 역외유출 문제에 고심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9일 시청 간부회의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은 광주지역 내 산업과 일자리가 부족한 때문이지만, 광주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박기웅 기자 kroh@kwangju.co.kr



전라도 정도 천년 '천년의 하늘, 천년의 땅' 10일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 '천년의 하늘, 천년의 땅' 전시회가 광주시립미술관 1,2관에서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유출열 작가의 '생, 놀이'란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기무사 계엄령 문건 독립수사단 구성 수사

문대통령, 국방장관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를 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독

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수

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되며 국방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별도의 사건에 한정된 기무사의 역할, 그 역할 뿐 아니라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지, 병력·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 구체적으로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5일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 중앙초에 유치 계획 재추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아시아문화전당 일원인 광주시 동구 중앙초등학교에 유치하는 계획이 재추진된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는 지역 예술인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이며, 아시아문화전당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일 광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 유치를 위해 오는 12월 정부와 국회 등에 국고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 1180억원(국비 300억원)을 들여 중앙초교 부지에 1만5299㎡(4636평)에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오는 2021년 완공 목표로 건립되며 내부에는 기획·상설·역사관 등의 전시관과 정원산책로 야외공연장 등의 문화공간이 조성된다. 또 일종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브랜드 시설인 국제창작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시민과 어린이 교육을 위한 교육관도 들어선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본격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의 분관 유치가 필요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현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국비 확보에 돌입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는 12월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2019년도 국비 지원사업 협의회에 참석하는 8명의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 같은 건립안을

설명하고 국비 300억원 지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를 통해 아시아와 한국 근대 미술을 아우르는 전문미술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는 기존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무산됐었다. 앞서 지난 2014년 광주 문화예술인들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추진을 위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었다.

또 지난 2008년 국립미술관 광주 건립 또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안이 문 광부에 제안됐고, 대선 전에는 지역문화 예술인들을 만난 당시 옛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언급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재논의됐다.

특히 허백련, 오지호, 김환기, 천경자 등 국내 근현대 미술의 중심이 호남이었지만 이들 근·현대 대표 작가들의 작품이 대부분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점 때문에 광주 분관 유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립미술관 윤익 학예실장은 "광주가 문화수도 되기 위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어야 한다"면서 "유명 도시에는 고대, 중세, 근·현대를 보여주는 미술관이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를 통해 국립광주박물관, 아시아문화전당, 비엔날레를 연결하는 문화 인프라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폭염특보 ... 다음주까지 무더위

폭염특보가 광주·전남지역 10개 시·군에 발효되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도 예상된다.

1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와 전남 나주·담양·화순·함평 등에 발효한 폭염주의보를 오후 4시를 기해 무안·영광·장성·구례·곡성까지 확대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나주 32.1도, 함평 31.9도, 무안공항 31.8도, 영광 31.7도, 나주 31.1도, 광주 31도 등을 기록했다.

폭염은 다음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됐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폭염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무더위가 이어져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대한민국 균형발전 방정식

자치분권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자

-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과 나누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분권 사전협약제 도입, 국제·지방세 비율 개선, 자치경찰제 확대
- 주민에 딱 맞는 정책으로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지역 맞춤형 특화산업 육성, 생활 주변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주민이 수립하는 마을계획,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 지역 간 격차와 규제는 줄어들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강화, 지방규제 네거티브방식 도입 확대
- 당신의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앞장섭니다!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전라남도 Jeollanamdo